

# 루키 윤영철 “만족은 없다...더 까다로운 투수로 변신”



윤영철



프로 첫 시즌에서 풀타임을 소화했고 8승도 기록했다. 하지만 '루키' 윤영철에게 '만족'은 없다. 윤영철이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까다로운 투수로 변신한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는 윤영철이라는 수확이 있었다.

충안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들어 윤영철은 5선 발 경쟁에서 승자가 되면서 선발 한 자리를 차지했다. 정교한 제구와 배트로 어필한 윤영철은 올 시즌 25경기에 나와 122.2이닝을 지키면서 KIA 선발의 한 축이 됐다. 4.04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 7패도 기록했다.

기억에 남을 프로 첫 시즌이었지만 윤영철은 “만족은 못 했다”고 2023시즌을 돌아봤다.

윤영철은 “풀타임을 뚫었다는 것 빼고 전부 다 기록이나 세부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안 다치고 시즌을 완주했다는 게 가장 큰 만족인데, 그것 말고는 만족하는 게 없다”며 “몇 경기 빼고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평균자책점이 가장 아쉽다. 이닝도 고졸이니까 120이닝을 잘 던졌다고 하는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유일하게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풀타임’을 이야기했다. 윤영철이 속제로 이야기 하는 부분 중 하나가 풀타임과 관련 있다.

윤영철은 “시즌 중간에 한 두번 선발에서 잘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믿고 내보내주신 감독님에게 감

KIA 첫 시즌 풀타임 소화 8승  
체력 길러야 한다는 것 느껴  
승 보단 기록에 더 신경쓸 것  
타이밍 싸움 위해 투구폼 교정

사하다. 그런데 풀타임이라고 해도 2-3턴을 걸렀다. 시즌 시작도 늦게 했고 전반기 끝날 때쯤에도 안 던지고. 후반기 시작하고도 늦게 던졌다”며 “풀타임 뛰면서 체력을 많이 길러야 한다는 걸 느꼈다. 체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확실히 체력이 많이 달리는 게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내 원래 실력도 안 나오고, 계속 힘들어하고 힘도 못 쓰고 그러는 것 같았다”고 확실한 풀타임을 위한 ‘체력’을 이야기했다.

만족은 없지만 매년 조금씩 발전하면서 세부 지표를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도 언급했다.

윤영철은 “한 해 한 해 조금씩 좋아지면 좋겠다. 평균자책점을 내리든, 이닝을 늘리든, 승이 많든, 탈삼진이 많고, 볼넷을 줄이든 그렇게 세부 지표에서 조금씩 올리고 싶다. 안되는 건 다음에 또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윤영철은 9월 8일 SSG전에서 시즌 8승째를 수확하면서 프로 첫 시즌 10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후 5번의 등판에서 윤영철은 승 없이

2패만 기록했다. 시즌 마지막 등판이 됐던 10월 8일 삼성전에서는 6이닝 1실점의 호투도 기록했지만 승리를 더하지는 못했다.

윤영철은 “승은 내가 잘 던진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승은 솔직히 타자들이 만들어 주는 것 같다. 내 피칭이 40-50%라고 치면, 거의 반반 정도다. 그래서 10승 투수도 많이 없고, 어려운 것이다”며 “8승 했을 때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욕심 내면 안 되는 것이다(웃음). 그래서 내년 시즌 승을 목표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록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프로의 단만, 싹트는 모두 본 윤영철은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더해 발전을 꾀하고 있다. 윤영철은 시즌이 끝난 뒤 투구폼을 수정하고 있다.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투구폼이다.

윤영철은 까다로운 투구폼을 가지고 있다. 공이 나오면 순간까지 손을 감추면서 타자들 입장에서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여기에 ‘타이밍 싸움’에서 앞설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윤영철은 “투구폼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편한 대로 던지다 보니 나온 것이다”며 “폼을 교정하고 있다. 클러브에서 손을 안뺀고 바로 연결해서 던지는 동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완성을 시켜야 한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타케시 코치 인스트럭터 초빙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 나카무라 타케시 코치를 인스트럭터로 초빙했다.

타케시 코치는 KIA에서 2015시즌부터 2017시즌까지 1군 배터리를 코치를 맡았고, 2018시즌에는 퓨처스 리그에서 포수들을 조련했다.

이후 타케시 코치는 일본 주니치에서 2019시즌부터 2021시즌까지 1군 배터리 코치로 활약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 나고야TV 야구 중계 해설위원과 야구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타케시 코치는 6일부터 KIA 캠프에 합류해 포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KIA는 지난 1일부터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마무리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한승택, 신범수, 한준수와 함께 2024루키 이상준 등 4명의 포수가 참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4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통과한 광주·전남 공수들이 태극마크를 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조한이, 남수현, 서보은, 이은경, 이승윤, 오예진, 김민서.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 남구청 양궁 이승윤, 파리행 2차 관문 통과

리커브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부 광주·전남 6명 20강 합류

이승윤(남구청)이 2024 파리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2024 양궁 국가대표 리커브 2차 선발전을 통과했다.

2023 양궁 국가대표이자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은 지난 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끝난 남자부 2차 선발전에서 배점합계 55점을 기록, 13위로 20강에 안착했다.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각 32명이 2차 선발전에 나섰고, 2-3일 이틀간 역배점을 안고 5라운드 토너먼트 경기와 4차례의 3발X5세트 기록경기가 진행돼 남녀 각 20명씩 선발됐다.

구대환(청주시청)이 남자부 1위를 기록했고, 김선우(코오롱엑스텐보이즈), 서민기(계명대), 김하준(공주시청)이 2, 3, 4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서보은(순천시청)이 4위, 오예진(광주여대)이 5위로 2차 관문을 통과해 3차 선발전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이어 이은경(순천시청)이 11위, 조한이(순천여고)가 12위, 남수현(순천여고)이 17위, 김민서(광주은행 태권양궁단)가 20위로 20강에 합류,

내년 3차 선발전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여자부에서는 염혜정(경희대)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조아름(현대백화점), 박소민(LH)이 2, 3위를 기록했다.

내년에 열린 3차 선발전은 2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각 20명과 2023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 중인 국가대표 남녀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역배점 없이 원점에서 경쟁을 해 남녀 각각 8명의 2024 양궁 국가대표가 선발된다.

국가대표 남녀 각각 8명은 최종 순위 평가전을 치러 남상위 3명이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을 거머쥘게 된다.

한편 2차 선발전 결과 남녀부 1-4위 선수는 인천선수촌에 입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계훈련을 한다.

광주·전남 남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2차 관문을 통과한 이승윤은 “광주 남자양궁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도전을 이어가겠다”며 “항상 든든한 지원과 응원으로 힘이 돼 준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남구청 임직원,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파리올림픽 무대에 꼭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이강철



정했다.

1-2차전에서 NC에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던 KT는 ‘벼랑 끝’에서 3연승을 질주하면서 정규시즌 1위 팀 LG 트윈스의 안방인 잠실로 가게 됐다. 5전 3승제로 벌어진 역대 PO에서 2패 후 3연승으로 한국시리즈 티켓을 거머쥔 사례는 1996년 현

## ‘광주일고 사령탑’ 한국시리즈 맞대결

KT 2연패 뒤 3연승 ‘마법’  
LG와 7일부터 마지막 승부

대 유니콘스, 2009년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에 이어 KT가 세 번째이다.

KT는 이날 승리로 2년 만에 다시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라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다. KT는 지난 2021년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에 성공했다.

마법 같은 ‘역짝승리’ 승리를 이끈 이강철 KT 감독과 29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지휘한 LG 염경엽 감독이 2023시즌 마지막 무대에서 ‘광주일고 사령탑 맞대결’을 벌인다.

한국시리즈는 7일 오후 6시 30분 잠실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7전 4선승제로 승부가 가려지며 7차전까지 대결이 이어질 경우, 15일 한국시리즈 우승팀이 가려진다.

한편 정규리그 4위 NC는 포스트시즌 6연승 행진을 펼쳤지만, 마지막 1승을 더하지 못하고 3연패로 우승 도전을 마감했다.

NC는 두산 베어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승리에 이어 준플레이오프에서 SSG 랜더스를 3연승으로 제압한 뒤 플레이오프 1-2차전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염경엽



정했다.

1-2차전에서 NC에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던 KT는 ‘벼랑 끝’에서 3연승을 질주하면서 정규시즌 1위 팀 LG 트윈스의 안방인 잠실로 가게 됐다. 5전 3승제로 벌어진 역대 PO에서 2패 후 3연승으로 한국시리즈 티켓을 거머쥔 사례는 1996년 현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관 30일, 앵그리 애니
- 4관 소년들
- 5관 톡 투 미
- 6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9관 30일
- 7관 씨네커플 - 융감한 시민, 시물런트, 키리에의 노래
- 8관 씨네커플 - 소년들, 융감한 시민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세종술로이스츠 & 이만 보스트리치 '일루미나이션'

일시: 2023-11-12(일)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